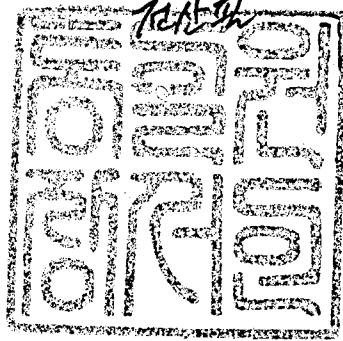


南北韓의 葛藤解消를 위한 行動科學的 接近

1990. 8.



朴 甲 壽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이 報告書는 '90 년도 當院의 職員 個別 研究課題  
應募時 제출한 研究論文입니다.

本 研究에서는 南北關係 改善에 목표를 두고 社會  
心理와 精神醫學 理論에 根據하여 人間 및 體制의  
心理와 行動을 다루고 있는 行動科學의 諸 技法과  
概念을 南北韓間에 應用코자 試圖하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收錄된 內容이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은 아닙니다.

# 南北韓의 葛藤解消를 위한 行動科學的 接近 (要約)

## 1. 研究目的

-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한 政策, 制度論的인 接近資料는 많이 있으나 人間, 組織, 體制 등의 心像과 行動을 중심으로 상대 측의 變化를 誘導코자 하는 研究는 全無한 상태임.
- 本 研究는 南北韓間의 葛藤을 解消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人間 및 體制의 心理와 行動을 다루고 있는 行動科學의 諸 技法과 概念을 南北韓間에 應用코자 試圖한 것임.

## 2. 研究方法

- 行動科學 (Behavioral Science) 이 人間의 行態 (行動, 認識, 態度, 價值觀 등) 의 決定要因을 探究하고 이를 體系化하고 있음에 着眼, 南北韓間의 關係變化에의 適用可能性을 摸索.
- 本 研究에서는 行動科學 範圍에서도 政策學의 政策過程 (Policy Process) 理論과 社會心理學의 葛藤 및 態度變化 (Attitude Change) 理論, 精神醫學의 心理矯正과 行動修正 (Behaviour Modification) 理論중에서 南北韓 葛藤解消를 目標로하여 假說的 體系를 構想.
- 南北會談時 北韓사람과의 接觸經驗을 볼때 北韓사람들의 特異한 行動樣式에 대해 別도의 對話方法이나 協商技法 開發 必要性을 切感한 것이 研究의 契機가 되었음.

### 3. 内容要旨

- 政策決定 過程에서 對象에 대한 偏見, 認知構造, 價値觀 등은 情報를 歪曲處理하며 政策參與者는 變形된 相對心像에 따라 實像이 아닌 虛像에 따라 判斷, 代案을 構想하고 있음.
- 南北韓間에는 現實認識, 體制目標 및 理念의 差異, 意思·疏通의 障導로 葛藤現象은 더욱 增幅되고 있음. 葛藤處理의 未熟으로 信念體系는 妄想體系로 까지 變質됨.
- 상대의 行動이나 態度를 變化시키려면 說得論理보다 『感情處理와 認識構造의 조정』이 훨씬 더 시급함. 北韓의 이데올로기 固着的 認識構造는 創造的인 思考作用을 妨害, 固定化된 非理性的 行動을 選擇하고 있음.
- 이러한 非現實的 認識과 함께 安保의 惡循環的 딜렘마도 적개심과 葛藤을 확대시키고 있고 眞實性있는 對話 채널이 確保되지 않음으로 Mirror Image에 의한 軍備競爭도 가속되어 왔음.
- 南北韓間의 葛藤은 理念과 現實의 gap, 名分과 實利에서의 選擇, 自己評價와 相對認定에서 오는 不安 등으로 接近-回避 모델로 說明될 수 있음. 北韓의 開放도 接近-回避 欲求가 비슷해 질때까지 약간의 試行錯誤 過程을 거치며 進行될 것으로 보임.

- 國家도 情報와 에너지의 投入產出로 維持되는 有機體로 볼때 國家政策의 實現은 體制行動의 概念으로 代替할 수 있음. 南北韓間의 體制行動을 民族和合 指向的으로 誘導, 發展시키기 위한 行動科學的 接近方案을 提示할 수 있음.
- 첫째, 韓國의 對北 Modeling方法임. 韓國이 模範的인 行動을 먼저 實踐시킴으로서 意識, 無意識間에 北韓의 心像에 투사되게 하여 韓國을 닮아가게 하는 것임.
- 둘째, 南北韓 接觸의 Shaping 方法임. 처음부터 만족할만한 一致 行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目標行動을 選定하고 始發行動을 찾아 漸進的으로 行動을 形成하게 함.
- 셋째, 脱感作的 (Systematic Desensitization) 北韓開放임. 北韓의 不安을 段階的으로 解消시켜가며 北韓을 外部 文物에 免疫이 생기도록 順理的이고 漸進的으로 開放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 넷째, 北韓의 肯定的 行動時 Reinforcement 바람직하게 行動이 變化되면 즉각 Incentive 나 利益을 保障해줌.

- 다섯째, 北韓의 否定的 行動時 Time - out  
葛藤을 고조시키는 行動時에는 孤立感을 느끼게 하며  
사기를 萎縮시킴. 결코 달래지는 않음.
- 여섯째, 認知的 行動修正 方法임.  
北韓의 現實認識과 올바른 情報處理 能力을 키워주는  
것임. 또 北韓社會에 衝擊보다는 刺戟을 주는 方法  
으로 北韓이 固着되고 있는 信念體系에서 非合理性을  
발견토록 함.

#### 4. 期待效果

- 體制間의 葛藤解消를 위한 心理的인 接近方法을 驅使함으로써  
지금까지의 南北問題에 대한 政治的 (투쟁적, 경쟁적) 接近方法  
의 缺陷을 補完, 精神的 共感帶形成을 통해 建設的인 對話  
· 接觸 可能
- 先進國이 非公開的으로 活用하고 있는 精神政治學 (Psycho  
Politics) 과 心理接近的 外交·協商의 基礎概念을 南北韓  
關係改善에도 應用할 수 있음.
- 對北政策 관련 各部處間의 實踐·行動을 立體的으로 統合  
展開可能.

# 目 次

I .	問題의 提起 . . . . .	1
II .	理論的 背景 및 研究方法 . . . . .	3
III .	南北韓의 葛藤原因 . . . . .	7
	1. 非現實的 認識과 行動 . . . . .	7
	2. 價値觀의 差異 및 對話障礙 . . . . .	13
	3. 惡循環的 安保 딜렘마 . . . . .	15
IV .	南北韓의 葛藤類型과 體制行動 . . . . .	18
	1. 南北韓의 葛藤形態 . . . . .	18
	2. 南北韓 葛藤構造의 特徵 . . . . .	20
	3. 體制行動과 葛藤解消 . . . . .	22
V .	行動科學的 接近을 통한 南北韓의 葛藤解消方案 . . . . .	25
	1. 韓國의 對北 Modeling . . . . .	25
	2. 南北韓 接觸의 Shaping . . . . .	26
	3. 脫減作的 北韓 開放 . . . . .	27
	4. 肯定的 行動에 대한 Reinforcement . . . . .	28
	5. 否定的 行動에 대한 Time - Out . . . . .	29
	6. 認知的 行動 修正 . . . . .	31
VI .	限界點 및 展望 . . . . .	34

## I. 問題의 提起

分斷 半世紀를 헤아리는 동안 南北韓은 통일문제를 민족 지상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여 왔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해 南北韓이 취한 접근방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정도에 비해 결실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는 생산적인 방법이었다고 자부하기가 어려웠다.

서로간의 이데올로기 차이와 뿌리 깊은 불신감이 남아 있어 對話 障礙 현상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통일문제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갭을 확대하면서 갈등의 악순환까지 빚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또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비타협적 요소가 많은 만큼 아직 분단 현실과 국가 목표를 연계시키는 정책구상에 머물러 있어 보다 차원 높게 民族發展 철학이 담겨 있는 국가이념으로 정립시켜 나가기도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강국들의 영향력이 크고 북한이 적화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이나 평화정착과 발전적 대화의 기틀을 확보해 내지 못한다면 마땅히 통일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재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특히 韓半島는 지구상에서 가장 휴전기간이 오랏 뿐 아니라 대치선상에 있는 무장력도 가장 밀집되어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데다 이제는 지구상에 유일한 分斷國으로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내에 분단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해 내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韓民族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지적당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직면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南北關係 개선의 모티브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상대하기 어려운 북한의 태도를 변화 시킬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해답을 요구하고 있어 한가지의 이론이나 모형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곤란하고 설혹 유사한 해결책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제한된 假說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대안이라고 자신하거나 만족 할 수도 없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높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接近方法을 모색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政策學에 있어서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 이론과 社會心理學의 갈등(Conflict) 및 태도변화(attitude change) 이론, 정신의학에 있어서의 行動修正(behaviour modification) 및 心理矯正(psychotherapy) 기법을 조합하여 일련의 행동과학 체계를 구상함으로써 南北韓의 葛藤解消를 유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이념, 제도와 법규보다는 感情과 認識構造 調整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며 이를 위한 심리교정과 행동수정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가설을 제기할 것이다.

---

주 1) 行動科學은 독립된 학문이라기 보다는 人間行態 (행동, 정신활동, 태도, 감정, 인식, 가치관 등)에 관한 모든 과학을 종합한 것으로 인간행태에 대해 영향을 끼쳤거나 인간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학문이다.

김 원 경, [행동과학] (서울: 박영사, 1976) p.9

서울대 의과 대학, [행동과학]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89) pp 3 ~ 5.

## II. 理論的背景 및 研究方法

지금까지 통일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論理展開와 對策 構想의 기저를 이룬 이론들은 대부분 체제의 이해득실에 민감한 정치전략과 국내외적 지지 확보를 위한 홍보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이론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상대측으로 부터 불이익이나 피해를 극소화 하는 데는 有用하지만 상대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는 기여할 여지가 적었다. 지금과 같이 변화된 정세에서는 승리나 제압을 목표로하는 "투쟁적 전략. 전술"과 화해, 일치를 강조하는 "理解와 葛藤解消" 가운데 후자의 방법이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간에 體制와 制度를 둘러싼 효율성과 생산성 경쟁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고 이제 남은 것은 人的인 경쟁 -- 즉 신념과 인식, 민족성, 도덕성 윤리등으로 사회 구성원의 심리상태가 南北韓의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차후 심리적인 면에서의 건전상태 여부와 강약 여부는 통일 후 新進世代之의 계층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2)

여기에서는 통일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고자 할 때 최우선적으로 비중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정책결정의 잠재적 토대가 되고 있는 국가, 집단 및 통치자의 心象形成이라고 가정하였다. 상대에 대한 心象은 감정과 인식구조에 의해 거의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북한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심리이론에 뛰어났던 Laswell은 政策過程에서 意思決定의 7 단계 모형 (seven point model of the decision process)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정책 담당기구와 그들의 기능에 대한 조사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그 모형을 고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주 2) 2 차 대전후 정신의학자였던 실존 철학자 K. Jaspers 는 敗戰 독일인의 황폐한 심리상태를 우려하여 2 년 동안 아나운서로 근무하며 독일인의 정신구조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바 있다.

제 1 단계는 情報(intelligence)단계로 국가적 차원의 정보기관, 언론, 통계 기관, 私的인 조직까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수집, 제공, 처리 한다.

제 2 단계는 動員(promotion)단계로, 이익집단이나 정부, 당료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안의 지지획득 활동을 의미한다.

제 3 단계는 處方(prescription)단계로 정책 결정자나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 진다.

제 4 단계는 행동화(invocation)단계로 결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관, 경찰 등 하급 집행부서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5 단계는 적용(application)단계로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의미하고,

제 6 단계는 종결(termination)단계로 내용 실현으로 행동화와 적용의 종결,

제 7 단계는 평가(appraisal)단계로 정책내용의 실현 정도, 결과 및 책임을 평가 확인한다.

이상의 7 단계 모형에서 제 4 행동화, 제 5 적용 단계는 진행단계로 합칠 수도 있고, 제 6 단계(종결)은 현실상 政策終結이 흔하지 않음으로 넣을 필요성이 없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Lasswell 의 이 7 단계 모형은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最初 情報의 중요성과 각 단계에 미치는 정보의 영향력을 암시해 주고 있다. 정보가 정책 결정자의 심상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왜곡된 정보는 왜곡된 심상을 형성케하며 각 단계별 정책 참여자는 實像이 아닌 虛像에 따라 판단하고 정책 대안을 구상하게 된다.

이 모형을 빌리자면 南北關係에서는 하나의 cycle로 환류(feedback)되는 7 단계 과정에서 2, 5, 6 단계에 비해 1, 3, 4, 7 단계에서 더욱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과정에서의 情報의 作用은 국가행동(national behaviour)과 심상(image)에 대해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事實과 올바른 視覺]을 떠난 정보 처리는 오직 정보 담당자의 가치관과 認知體系(cognitive system), 정보대상에

대한 심상에 따라 굴절되거나 오식 된다.

韓國이 北韓을 괴뢰집단이 이끌어 가는 미수복지구로 인식하고 북한이 남한을 사회주의권으로 통합시켜야 할 美帝의 식민지로 인식해 오며 따라 양측은 상대의 변화된 실체를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stereotype)과 최초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지금까지 받은 교육적 가치판단 과정을 거쳐 해석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심상을 [외적 자극에 의해 의식에 표상에 나타난 직관적 表象], [감각적 성질을 지닌채 머리에 떠오른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국가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순환 작용으로 생존한다고 볼 때 國家行動(National Behaviour)은 국가의 상대에 대한 심상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서의 심상은 [한국가가 국가외의 다른 국가. 집단으로 받는 자극에 대한 반응적 이미지] 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행동을 선택할 때는 투입된 이미지 요소(心象情報)를 기초로 해서 국가 목표에 적합하게 처리 한 후 행동화(output) 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살피게 되면 차후의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대상이 갖고 있는 심상은 정책결정에 시종여일하게 영향을 주어 對應方針이 이루어 지고 나아가 외교적으로까지 확대된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명분, Ideologie, 지도자의 개성, 지배 집단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정작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價値判斷 土臺로서 상대에 대한 심상의 작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그런데 여기에서 심상의 작용을 증폭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葛藤 문제가 등장한다. 갈등은 개인 또는 국가의 행동방침을 확정짓는데 혼선을 빚게하고 시기적절한 대책수립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국가는 정치이념에 따라 인적·물적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존재하고 정치

---

주 3) 민중서관 편집국, [심리학 소사전] (서울: 현음사, 1988)

4) 鄭正喆, [정책결정론] (서울: 대명 출판사, 1988) pp.190 ~ 192

이념은 信念體系로서 제시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확립된다. 그러나 南北韓간에는 現實認識과 목표상의 차이,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갈등 처리의 미숙으로 신념체계는 妄想體系로 까지 변질되고 있는 점도 있다. 따라서 갈등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5)

인식과 갈등 문제 다음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變因은 감정에 관한 문제이다. 축적된 감정이 태도의 방향을 일정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感情을 解決하거나 변화시키지는 않으면서 설득논리만으로 대상에 대한 행동을 변화 시키려는데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변화에의 기대는 서로간에 葛藤을 克服하려는 의지와 극복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나 접촉, 교류가 빈번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이 태도변화 발생 방법에만 의존하기 어렵다. 6)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수정과 심리교정 기법이다.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대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서로간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여러가지 접근 idea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북한의 거부 반응을 줄이면서 共感帶를 擴散시키는 방향으로 行動科學에 사용되는 modeling, shaping, reinforcement 등 여러가지 개념을 이용하여 남북한 간에 응용할 수 있는 갈등해소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7)

---

주 5)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13 ~ 28

6) Rosenberg, M.J. and Hovland, c.I.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Aaven: Yale univ, press, 1960 pp 1 ~ 14

7) 선진국에서는 매우 어려운 외교 문제, 분쟁 협상등을 위해 심리학자, 정신 의학자들 까지 동원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은 정신과 의사를 보내어 베긴 수상 측과 사다트 대통령측 수뇌들의 편견을 없애고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성공시켰다. 歐美學界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인간문제에 중심을 둔 정치학과 정신의학을 결합한 정신정치학 (Psycho Politic)이 대두 되고 있다.

### Ⅲ. 南北韓의 葛藤原因

#### 1. 非現實的 認識과 行動

人間行動을 연구하는 행동과학의 기본적 사고의 특징은 인간을 정보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는데 있다. 자기보존의 경향, 즉 자기해체에 대한 저항 경향을 갖고 있고, 유전이나 전래되어온 잠재능력에 따라 성장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다른 생물체와 같으나 인간시스템은 情報를 受容하여 처리하는 의식구조 측면에서는 다른 어느 생물체보다도 우수하다.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으로서 다음 네가지의 특징이 있다. 8)

첫째로, 인간은 自己 認識과 自己 指揮가 가능하다.

예견과 목적을 갖고 행동하며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로, 인간은 自己 行動을 修正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본능의 지배를 가장 적게 받는다. 정보를 기억하고, 새로운 기능, 관념, 도구등을 개발할 뿐 아니라 추리력이나 상상력을 동원하고, 항상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셋째로, 인간은 자극이 없어도 Symbol을 사용해서 반응할 수 있다.

思考作用을 통해서 심볼을 조작하고 장래의 행동을 이지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넷째, 인간은 환경과의 교섭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킨다.

사회를 형성하는 동물은 있으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

주 8) 金元卿, [행동과학] (서울 : 박영사, 1976) PP 16 - 23

환경과의 교섭에 임해서 인간은 감정, 욕구등을 동반한다.

다섯째, 인간은 정보에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간행동은 다른 동물들처럼 오직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에 앞서 價値 判斷에 따라 추구하여야 할 목표를 결정하고 수단을 선택한다.

이상 다섯가지 인간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은 에너지 시스템인 동시에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 南北韓의 葛藤을 이상의 인간시스템에 입각해서 살펴 볼때 하나의 정보가 잘못된 지각 과정을 거치거나 목표지향적으로 해석 처리되면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행동으로 出力됨을 알 수 있다. 앞서 Laswell의 의사결정 7 단계 모형에서 본 바와 같이 제 1 정보단계에서 수집된 최초정보는 마지막 단계 까지 시종여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知覺過程에서는 끊임없이 들어 오는 자극과 정보에 대해 관심과 욕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 들이려는 경향이 있으며, 불충분한 정보나 애매한 상황에 직면해서는 상상에 의해 情報를 構造化하고 擴大 處理코자 한다.

또 인간의 행동은 상황에 직면해서 그 상황을 처리할 자신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課題志向的으로 옮겨가고 위협을 받거나, 부족함을 느끼면 防衛志向的으로 옮겨간다. 9) 그러나 피이드백 과정에서 이미 실패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행동형을 바꾸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에 급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각, 사고, 행위의 형태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굳어버린 형태를 수정하자면 고통스런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자기의 認識 形態를 固守하자 하는데 기인한다.

---

9) Skinner, B.F :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Macmillan, 1953),

이러한 固着的 認識構造는 주로 불안과 공포가 만연되는 분위기에서 형성되기 쉽다. 불안에 사로 잡히면 새로운 문제에 대해 창조적인 사고를 못하고 판에 박은 듯한 접근방법을 취하게 된다. 또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주의력이 緊張領域으로 집결되어 널리 확대되어 있던 知覺의 場(Perceptual Field)이 축소되어 상황을 다시 해석하거나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진다. 10)

확산되어 있던 지각의 장이 축소되고 위협을 느낀 時點이 고정화되면 지각된 여러가지 정보의 상호교신이 두절됨으로써 판단력이 둔화되고 固定化된 非理性的 行동을 취하게 된다. 계속 긴장이 증가 되면 결국 交通장애현상을 일으켜 단편적이고 비통합적(분열적)사고과정으로 이행된다.

金日成과 그 주변인물들이 갖고 있는 偏執症(Paranoia)현상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이데올로기로 하여 정권을 쟁취하고 北韓 社會를 統攝시켰으나 [한반도의 사회주의화]에 固着되어 다른 가치나 이념을 창출하지 못하고 이제는 현실상 불가능한 환상적 이데올로기임에도 이 이데올로기와 관련되는 정보만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또 이데올로기의 특성으로 볼 때, 제시된 이데올로기가 실현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이데올로기 배후에 있는 최초 목표가 달성된 후에도 慣性的 法則처럼 이데올로기가 정책에 줄곧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이데올로기가 제시되었으나 이제는 逆轉되어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북한 나름대로 북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시한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信念體系로서 처음에는 북한의 재건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으나 점차 비현실성을 노정함으로서 妄想體系로 굳어져 북한의 지도층은 물론 북한 전체가 망상체계에 의

---

주 10) Hull. C. L : Principles of Behavior, New York, Appleton -  
Century, 1943, P 95



존하는 집단 편집증적 (Paranoia) 病理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11)

이러한 인식과정은 곧 이어 증오심을 培養하는 정치사상 교육과 연계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北韓의 정치사상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革命的 世界觀의 形成過程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12)

첫째, 認識(인지)단계로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과 불합리한 제도, 갈등을 폭로 인식시키고,

둘째, 憎惡(감정)단계에서는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극렬하게 증오하며,

셋째, 決心(행동)단계에서는 최후까지 기꺼이 목숨을 던져 투쟁하려는 혁명적 각오를 가진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 3 단계 心理意識改造 理論은 서구 심리학의 인지 --> 감정 --> 행동으로 이어지는 태도변화 방식과 유사하나 최초 인식단계에서 자본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視野를 한정함으로써 집착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인식단계에서 부터 葛藤을 自招하는 편집적 사고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증오심배양이 주는 惡影響도 적지 않다. 과도한 증오심은 개인과 집단을 통해 전달되고 기성세대에 의해 다음세대로까지 계속 轉移(전염)된다.

歷史를 통해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영토와 자산을 강탈하며 그들 스스로가 약탈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힘을 계속적으로 강화코자 하는 사례가

---

주 11) 이근후, [정신장애의 분류와 진단편람 (DSM - III - R)]

(서울: 하나의학사, 1989) P 129

망상체계는 뚜렷한 妄想性 病에 걸려 있는 다른 1명 또는 여러명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므로서 발전한다.

주 12) [사회주의 심리학] (東京: 學友書房, 1974) PP 53 - 61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공격적이고 강탈적인 행동과 관련되는 증오심은 일반적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특정한 인격들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13)

특정한 인격들이 갖고 있는 증오심은 사회전반에 걸쳐 緊張을 高調시키고 체제를 넘어서 까지 전염된다. 그렇게 될 때 선량한 사회 구성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集團精神에 맞추기 위해 自我를 위축시키고 外의 人格(external personality)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persona라고 불려지는 이 외적 인격은 집단이 요구하는 기대, 역할과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요구될 때에는 人格 解離(Personality Dissociative)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14)

독재체제나 동원체제일수록 자아와 persona의 불균형이 심한 것은 사회구성원이 독특한 개성을 갖기가 어려운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한 체제에서는 사회구성원은 2개의 가치기준을 갖게 되고 2분법적인 사고에 젖게 되며 感情의 표출에 있어서도 極端的인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大腦生理學에 있어서도 극도의 증오감은 뇌를 긴장시키고 뇌혈액의 화학성분을 변화시켜 뇌의 情報處理 메카니즘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잠재의식에 충만한 증오심은 自律神經界를 混亂시키고 의식의 영역에 까지 逆流함으로서 性格異狀(Personality Disorders)으로 까지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5)

사실상 北韓은 지금까지 韓國에 대해 증오일변도의 심상을 형성해 왔다. 한국의 주민은 "美國의 군화아래 짓밟히는 동포"들로 지도층은 "外勢와 결탁한 走狗"들로 묘사하여 인식시킴으로서 일면 민족해방의 使命感을 고취시키면서 일면 극렬한 憎惡感을 주입시켜 왔다.

---

주 13) 허 찬 희, "적개심의 개관" [대화] 제 4권 1호, 1987년 경북대의과대학

주 14) 서울대의과대학, [행동과학],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9) PP 30 - 31

주 15) 이 훈 구, [인간행동의 심리] (서울:지학사, 1985) PP 200 - 207, P 237

증오심의 주입은 키워야 할 苗木에 거름대신 화공약품을 붓는 것처럼이나 인간의 성장에 크나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

이처럼 증오심에 바탕을 둔 北韓의 行動方針이 합리적일 수 없으며 전략·전술상의 목표와 수단이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自明하다. 북한이 유치원에서 성인교육에 까지 활용하고 있는 증오심 주입 교육방법은 심히 왜곡된 對韓 心像을 형성케 하며 통일문제에 대해 대단히 비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게 하며 韓國에 대해서도 여간 부담을 안겨 주는 게 아니다.

또한 증오심(Hostility)은 공격성(Agression)을 유발시킨다. 증오심이 전적으로 파괴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에 비해 공격성은 목표와 방법에 따라 파괴적이거나 건설적일 수도 있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北韓體制의 공격성은 남쪽을 指向하는 데 문제가 있다.

Berkowitz는 공격행동에 있어서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 공격성이란 선천적인 성향과 학습된 반응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7) Freud는 증오심으로 인해 인간내부에 높은 정서적 긴장상태가 유지 될때 공격에너지가 축적되어 暴力으로 나타나거나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Archer와 Gartner의 연구에 의하면 對外的 攻撃性は 對內的 犯罪率과도 큰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들은 1900년 이후 거의 110개국의 범죄율을 조사 비교하였는 바, 전쟁을 치룬 국가는 치루지 않는 국가와의 殺人 事件率에 있어 戰後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

---

주 16) 이 동 식, [현대인과 노이로제] (서울:현대의학서적사, 1985) PP 17 - 20

주 17) Elliot Aronson, The Social Animal 윤진 번역, 현대 사회심리학 개설 (서울 : 탐구당, 1984) PP 168 - 169

이것은 전쟁은 攻擊行動을 合法化함으로서 심리적인 여파가 전후에 공격성의 증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8) 이와 같이 증오심에 기인하는 공격성은 상대측은 물론 자체내부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2. 價値觀의 差異 및 對話障礙

韓國이 급속한 산업화로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변화된 이상으로 北韓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위해 전통사상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협동정신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이나 북한에서는 워낙 개인경쟁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개인적 소영웅주의로 대체되고 말았고 敬祖思想도 미신적 요소가 있다고 배척한 대신 김일성가계의 우상화로 대체된 실정이다.

善惡의 價値基準은 오로지 공산주의 혁명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으로서의 덕목은 혁명 수행을 위한 그 어떤 反社會的 反道德的인 행위도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

北韓은 소련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S(자극) --> R(반응) 중간에 언어의 비중을 중시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를 투쟁적이고 攻撃的인 用語로 충당해 나갔다. 유물론 심리학자 Vygotsky 는 언어는 자극에 대한 무조건적인 反射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언어를 내면화함으로서 실용적 지능을 사회적 지능으로 변환시킨다고 주장하였다. 19)

---

주 18) Dane Archer and Rosemary Gartner, "Violent Acts and Violent Times : A Comparative Approach to postwar Homicid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41 (1976) , pp 937 - 963

주 19) L.S Vygotsky, Thought and Language (Mass:MIT press, 1974) PP 30 - 35

언어는 이처럼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행동을 조직 계획함으로써 환경에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고 언어를 이용하여 共産主義 教養(Indoctrination)과 洗腦(Brain Washing)를 효과적으로 실시 하여 왔다. 또 '언행은 사고를 결정하고 사고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기본 명제에 따라 北韓에서는 용어의 개념을 함목적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언론 매체는 선전 선동에 적합한 구호와 공격성을 내포한 언어로 일관하여 보도 하고 있다.

북한이 인간중심적인 사상이라고 主體思想을 내세우고 있으나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용어부터 극히 人間을 手段化하는 계급적 원쑤, 몸 바쳐 투쟁 등 비인간적 개념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때, 북한 전역이 인간보다는 혁명과 투쟁을 중시하는 言語의 魔術에 걸려 있는 공포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20)

이러한 정치사상적 배경 때문에 남북한의 價値觀 教育에서도 심각할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소양, 정서순화, 국가관 정립, 기초체력 배양 등에 교과를 할당함에 비해 북한은 공산주의 원리원칙, 혁명투사정신 함양, 국방체육강화 등 政治目的達成을 위한 내용으로 교과가 구성되어 있다.

社會化 過程時의 학습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成人이 되었을 때의 가치관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남북한 접촉시에는 인식 구조와 가치기준이 달라서 대화를 용이하게 진행하지 못한다. 21) 인식구조가 아무리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健全하고 相通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 점차 대화를 확대해 갈 수 있으나 가치판단에서 정치적 실익 계산이 첨가됨으로서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와 같이 社會心理學的 견지에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相異한 가치를 內在化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남북한간에 대화 장애 현상을 빚고 있다고

---

주 20) [노동신문] 1987. 7. 15 1 - 2 면 참조

주 21) 정 양 은, [사회 심리학] (서울 : 법문사. 1981), P 74

도 볼 수 있다. 22)

### 3. 惡循環的 安保 딜레마

南北韓이 서로를 위협적 존재로 보고 안보수단을 강구하고자 할 때 무력경쟁이 확대되어 가는 악순환적 딜레마(Security Dilemma)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군사력의 균형은 혁명의 포기, 자본주의 진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진영에서는 항상 상대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당의 노선과 이데올로기에 부합되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겠다.

北韓이 이와 같은 공격적인 자세로 임할 때, 韓國은 북한의 남침의욕을 좌절시킬 정도의 평시 군사력을 유지하여야만 국가 보위를 다하는 것이다. 한 쪽은 強勢를 유지하려고하고 또 한 쪽은 弱勢를 만회하려하겠다는 의도에서 군비증강의 논리가 계속 전개되고 있다. 23)

軍費增強 意思에 앞서 상대에 대한 의식과 심상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增幅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양측은 서로의 실상과 실제에 입각한 판단 보다는 誤解와 誤識(misperception)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John Stoessinger의 개념 범주를 빌려서 보자면 서로의 Image, 서로의 상대방 성격 인식, 서로의 상대방 의도 인식, 서로의 상대방 힘과 역량의 인식에서 誤認과 曲解가 있다는 것이다.

---

주 22) 對話者가 이중적이거나 적개심에 차 있을 경우 공감(Empathy)형성이 어렵다. 대화에는 언어로 나타나지 않는 무의식적(Non - Verbal)대화의 비중이 70 - 80%를 점유한다.

Paul A. Dewald, 김 기석 역,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8) PP 125 - 145

주 23) 양 성철, "남북한 무력갈등과 새로운 대안" [남북한의 평화 구조]

(서울 : 법문사, 1990) PP 269 - 271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認識 閉鎖 (Cognitive Closure) 경향이다.

정책 결정자가 기존 정책이나 保有 이미지가 새로운 사실에 의해 비능률적이고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문이나 개선의사를 保留하거나 看過하려는 것이다. 南北韓은 서로가 敵의 개념에서 同伴者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음에도 적이라는 기존 개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존의 Paradigm을 고치지 않고는 악순환적 關係 惡化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남북한의 이러한 상호불신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에 Mirror Image가 있다. 24) 상대에 대한 實像을 평가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인지의 왜곡과정을 거쳐 서로간에 상대에 대한 虛像을 놓고 평가한 뒤 非現實的인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진행되어온 비생산적인 외교·군비 경쟁은 이 Mirror Image가 많이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딜레마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事物을 判斷하는 論理構造이다. 우리의 경우, 뇌의 정보처리 시스템은 부지불식간에 대전제 --> 소전제 --> 결론으로 이어지는 形式論理에 따르는 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은 正(현실) --> 反(목표) --> 습(투쟁) --> 으로 이어지는 辯證法的 思考를 택하는 수가 많다. 본시 변증법은 대화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이론에 적용되면서 대화와는 거리가 먼 투쟁적 행동철학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대안 선택에 관련된 이론으로 죄수의 딜레마 (The Prisoner's Dilemma)게임이 있는데 이 이론 역시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을 어느 정도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다. 별도로 收監된 두명의 피고가 묵비권을 행사시 가벼운 求刑을 받으나 어느 한 쪽이 자백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극히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自白함으로

---

주 24) 민 병 천, [전환기의 통일문제] (서울 : 대왕사, 1990) P 339 - 345

전통적으로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두 국가가 서로를 사악한 존재로 보고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는 신념상태를 유지

중간정도의 형을 받을 각오를 한다는 것이다. 25)

南北韓간의 군비경쟁에 있어서도 서로 믿을 수 있는 대화의 窓口가 있거나 서로의 진실된 입장을 감지할 수 있으면 군비를 동결하거나 사전 타협할 수 있는데 단절된 상태에서는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조치하기 전에 自己 保衛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비유할 수 있다. 26)

이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비생산적 경쟁은 비동맹권과 개도국들이 남북한에 대해 원조 경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민족 에너지를 소모시켜 온게 사실이다.

---

주 25) 이 장,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의 역할" 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발표자료, P 5

죄수의 딜렘마 이론은 조지 케난이 알 카포네를 체포하여 자백받을 때 처음으로 쓰여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game이론이다.

주 26) Wolman, B. The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History,  
이 운재 역, 정치지도자의 정신분석 (서울 : 태양문화사, 1978)

PP 265 - 272



## IV. 南北韓의 葛藤類型과 體制行動

### 1. 南北韓의 葛藤形態

南北韓이 다시 統合되어 대륙과 해양세력의 調整者로서, 東北亞의 平和 主導者로서 역할할 수 있기를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통일을 위한 체질개선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고 체제내부에서는 통일을 향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견 일치를 위한 內部 協商이 변수로 남아 있다. 남북한간의 갈등은 이처럼 자체 내부와 남북한 간에 정책결정과 협상에서 여러가지 葛藤 形態가 나타나고 있다.

Lewin은 葛藤 場面을 접근 - 회피라는 두가지 상반되는 반응 경향으로 설명하면서 세가지 주요 갈등형태를 제시하였다.<sup>27)</sup>

첫째는 접근 - 접근 갈등이다.

두가지가 다 바람직하거나 이끌리는 행동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하나를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北韓의 입장에서는 "인민경제발전"이나 "군사우위계속유지"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둘째, 회피 - 회피 갈등이다.

두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않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로 그 장면에서 벗어나려 할 때가 많다.

생명을 걸고 체포해야 하는 수사관이 물러나고 싶으나 동료가 대신 위협받게 됨으로 行動選擇이 극히 어려워진 상태와 같다.

북한이 "閉鎖政策"도 "社會의 落後"도 둘다 싫은 경우와 비슷하다.

---

주 27) Lewin, K.A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K.E. Zenev & D.K Adams trans), NEW YORK : Mcgraw-Hill, 1935.

셋째, 접근 - 회피 갈등이다.

같은 목표에 대해 相反되는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이다.

북한 지도층도 "개방"이 좋지만 "체제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만약 북한의 지식인과 전문관료는 개방을 원하고 군 고위층과 강경파 당료들은 폐쇄정책을 고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중적 접근 - 회피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

Lewin의 이 갈등모델은 韓國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북한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北韓과의 교류·협력을 반대하는 그룹은 없으나 급속한 군비통제 추진에 대해서는 軍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직 自主國防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통제는 국가보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세가지 갈등 모델중 南北韓 問題에 가장 근접된 모델은 접근 - 회피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치이념과 현실의 gap, 명분과 실리에서의 선택, 自己評價와 相對認定에서 오는 不安 등이 접근 - 회피 갈등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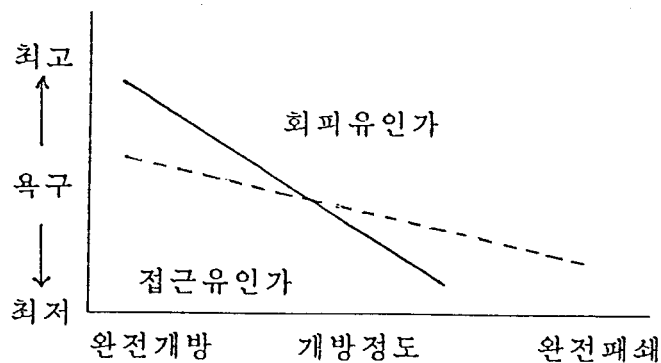


도표 1) 북한개방에 대한 접근 - 회피 갈등

접근 - 회피 갈등에서는 바람직한 목표가 가까와 질수록 欲求水準은 점점 높아지나 싫어하는 목표를 회피하려는 욕구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회피 경향이 접근 경향보다 더 傾斜度가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접근 - 회피 갈등에서는 접근 - 회피의 욕구정도가 비슷할때까지 지그재그를 그리며 목표로 접근을 계속한다.

북한의 開放問題도 개방에 대한 접근 욕구와 회피 욕구가 비슷할 때까지 약간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며 開放程度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北韓의 고위층이 단호한 政策決斷으로 완전개방을 실현코자 한다면 이미 그때는 심리적인 갈등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意識構造와 가치판단아래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의 모델은 해당되지 않는다. 28)

## 2. 南北韓 葛藤構造의 特徵

현재 韓半島는 냉전적 정치군사적 갈등구조를 마지막 標本처럼 보여주고 있는 對峙 地域으로 주목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양대 진영이 대치하고 있으나 그렇게 비타협적이거나 일방적인 태도, 고도의 전술, 공작적인 교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북한은 어떻게 해서 타 지역과는 特異한 葛藤構造를 보여주고 있을까 되돌아 살펴보기로 한다.

---

주 28) Kurt Hauss, Medical Psychology, 윤흥섭 역. 의학심리학  
(서울 : 성원사, 1986) pp 146 - 147

첫째, 남북한은 한 세대 기간이 넘는 식민지 통치를 겪으면서 영토의 주인다운 주체성을 상실해 버렸다.

식민지 교육과정에서도 民族魂을 제거시키는 내용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족사상이나 역사의식을 키워 올 수가 없었고 해방후 정신문화가 걸려된 상태에서는 급속히 밀어 닦힌 외세를 감당해 내지 못함으로써 冷戰의 전초 역할을 떠 맡게 되었다.

둘째, 양대 진영의 代理戰(proxy war)과 같은 6.25 전란에서 1/4에 달하는 死傷者를 발생시켰다. 29)

양측이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기성세대의 상대측에 대한 뿌리 깊은 감정은 후계 세대에 까지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최근에 이르기까지 zero-sum game에 따른 경쟁으로 상대의 의도나 행동을 발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국제 사회에 투입된 민족 에너지가 재투자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다.

넷째, 安保優先主義에 입각하여 군의 肥大化를 가져 왔고 반대로 사회 복지 및 소외 계층에 소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북한이 GNP의 20 ~ 25%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한국은 GNP의 5.7 ~ 5.8 %를 군사비로 사용하나 극빈자 및 장애자를 위한 복지예산은 군사비의 1.8 %에 불과하다는 것은 안보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하였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다섯째, 對話체널(판문점)은 있으나 당사자끼리 교섭, 소통하려하지 않고 주변국에 依存的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실보다는 宣傳效果에 치우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반대와 통합"을 동시에 수용하려는 양면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30) 이러한 대책 구상은 좋게

---

주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자료실 통계

남북한 민간인 사상자, 남북한 군인 사상자, 포로를 합치면 5,310,946명에 달한다.

주 30) 갈등에서 兩價感情이 생기고 여기에 stress가 가해지면 분열적 사고 장애를 일으킨다.

말하면 유사시에 신속적으로 대비하는 A,B안을 준비하는 것이나 나쁘게 말하면 양가 감정(ambivalence)을 표출시켜야 하는 것으로 국민정신건강에 극히 해로운 것이다.

여섯째, 상대측의 위협적 요소가 체제 유지에 필요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31)

한국은 經濟問題에 제 1 차적 비중을 두어 옴으로서 오로지 통일 문제에 정권의 死活的 기반을 두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軍國主義的 전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정도로 통일전선형성과 군사력 강화에 힘써 왔다. T/S 훈련까지 북한은 주민 결속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특징은 신데짱뜨 조류를 타고 緩和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셋째항과 여섯째 항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東.西獨처럼 분단이후 계속 접촉 교류가 있었거나 라디오, T.V 등으로 서로를 체험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었고 간간히 소통되는 정치적 대화만으로는 갈등구조를 변형시킬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3. 體制行動과 葛藤解消

前項에서는 남북한의 갈등구조의 특징을 여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갈등구조 개선과 갈등해소를 위한 行動單位를 검토한 후 접근 방향을 模索코자 한다.

갈등 해결의 주역이 개인이라면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는 개개인을 둘러싼 체제가 기본 行動單位가 되어야 행동방침과 國家戰略이 부합된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하나의 行動主體로서 관찰하면서 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體制行動이란 개념을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 31) 구 영 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서울 : 법문사, 1990) PP 272 - 279

체제가 갖고 있는 4대 기능으로서

첫째, 재화의 생산과 획득(경제)

둘째,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정치)

셋째, 下位體系 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調整과 연대성 확립(사회 통제)

넷째, 구성원의 社會化와 동기 부여(교육, 가정)등이 있다.

사회 전체는 이상과 같은 기능이 분담되어 활동되면서 존속하는데 분담된 기능별로 본 활동은 제도활동이라고 부르고 각 기능을 망라한 사회 전체의 행동을 체제행동이라고 일컫는다.<sup>32)</sup>

남북관계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몇 개 부서만의 능동적 행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組織行動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대한 반응을 관찰할 때는 역시 체제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확률에 근거한 이 체제행동의 諸事實은, 사회변동이 內部로 부터 요구될 경우에는 사회적 분열이 수반되지 않고, 문화의 비물질적 측면보다는 물질적 측면에서, 상징적 요소 보다는 비상징적 요소에서 먼저 사회변동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포괄적일수록 해결 압력도 높아지고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깊을 수록, 論爭에 휩쓸려 있는 조직에 대한 관여도가 클수록 갈등이 격렬해 진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남북한 간에는 기능적 접근을 위한 體制行動을 誘發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갈등을 줄이고 구체적인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Action Research 기법이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이 방법은 바람직한 인격특성의 조장, 인간관계 개선, 집단간의 갈등해소, 사회적인 실천관리를 사회공학적으로 연구하도록 한 것이다.

---

주 32) 김 원 경 : [행동과학] (서울 : 박영사, 1976) pp 109~110

Action Research의 일반적인 순서는 , [문제의 소재 규명—> 도달 목표의 선정 —> 가용수단 검토 —> 행동의 제 1 단계 결정과 실천 —> 행동의 기록과 평가(사실 발견) —> 계획수정, 보완 —> 행동의 제 2 단계 계획과 실천]으로 진행되며 나선형의 循環過程을 밟는다.

그러나 Action Research 는 경영조직에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北韓과 같이 대하기 힘들고 경직적인 체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 우리 측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行動主體이기 때문에 遠隔的으로도 영향을 끼치거나 반응을 감지 할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한 것이 心理矯正과 行動修正(Behaviour Modification)에서 活用되는 기법을 남북한 관계에 맞추어 행동과학적으로 묶어 체계화 하는 것이다.33)

---

주 33) 우리나라에서는 行動科學에 기초한 체제행동이나 국가행동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기 어려우나 先進國에서는 오래전 부터 이 분야에 대한 試圖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민 통치, 전쟁을 겪었거나 社會病理가 많은 국가는 행동과학적 방법을 통해 正常社會에로의 復歸期間을 단축킬 수 있을 것이다.

## V. 行動科學的 接近을 통한 南北韓의 葛藤解消方案

人間의 心理와 行動을 대상으로하는 심리교정과 행동수정에 관련되는 技法은 45-50여 종류가 있으나 모두가 바람직한 意識構造와 바람직한 行動을 形成하거나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南北韓 문제는 개인행동으로 정책결정권자에서 부터 체제행동으로 사회전체에 이르기까지 規模의 大小에 따른 행동이 기본단위가 되어 이제 民族和合 지향적인 行動變化에 당위성을 부여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應用 可能한 기법과 방안만 提示하고자 한다.

### 1. 韓國의 對北 MODELING

韓國은 北韓을 rival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생 또는 선생의 입장에서 본보기만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본받아야 할 model로써 국내와 국외에서 한국이 제 3국의 비판을 불허할 정도의 모범을 보여 주게되면 한국의 행동이 북한의 心象에 投射되고 북한도 의식, 무의식간에 한국을 닮아 가는 것이다.

북한이 사소한 경우라도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올 때에는 즉각 적절한 利益을 제공하거나 좋은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럴때 한국의 행동논리는 "民族發展"에 근거하여야 한다. 과거의 "반공과 통일"은 이념상으로도 모순적이며 갈등을 야기시킨다.

한국이 북한의 model이 될수 있는 행동은, 국제사회에서의 國家利益에 반하지 않는 대북협조, 남북한이 같이 참여한 스포츠 게임에서 북한을 위해 가끔 양보하는것, 國際會議에서 북한을 감싸주는것, 해외출장 나온 北韓人士에게 인적 물적성의 있는 협조, 한국팀을 제외한 국제시합에서 북한팀을 응원해 주는것..... 등 여러가지를 들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T.V드라마나 인쇄물, 보도를 중지하는 것도 상호간에 model을 촉진시키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직 北韓의 적화의회사 포기 여부가 불분명하기때문에 model 행동중에 북한외 工作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model 행동에 대한



반정부 행위가 접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접촉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南北韓 接觸의 SHAPING

처음부터 원하는 행동을 바랄수 없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거나 이어질수 있는 始發行動을 찾아 목표행동으로 점진적으로 접근시켜 가는 것이다. 점진적인 접근법(the method of successive approximation) 또는 새로운 행동형성법이라고도 한다.34)

Shaping 절차로서는

- 첫째, 목표행동(terminal behavior)을 선정하고
- 둘째, 시발행동(starting behavior)을 탐색하며
- 셋째, 적절한 강화물(reinforcement)을 준비하면서
- 넷째, 形成過程의 중간단계(shaping step)를 설정한다.

여기에서 목표행동은 포괄적인 행동보다는 具體的인 행동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 시발행동이나 목표에 접근하는 행동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Incentive나 기쁨을 제공한다.

南北韓의 接觸對話시 결렬되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신사도를 지키는 것을 목표 행동으로 가정해 보자

시발행동으로서는 책임전가 안하기, 웃으며 헤어지기, 재회의 약속, 공정한 언론타도, 私的으로는 의리지키기... 등을 구상할 수 있다.

적절한 강화물로서는 상대에 대한 名譽保護, 칭찬, 부담스럽지 않은 膳物, 제 3국에서의 호의적 對北 態度表示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

주 34) 이성진, 유효순, [행동수정의 기법Ⅱ]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中間段階로서는 결렬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은 이쪽에도 있다는 식의 태도표시, 상대에 대한 期待가 아직 희망적이라는 立場表明 등을 들수 있다.

이 방법은 목표행동을 선정하기 전에 자연스러운 가운데 接觸이 形成되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5)

### 3. 脫滅作的 北韓 開放

體系的 脫滅作的 方法(Systematic Desensitization)이란 不安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배열하고 그 순서에 따라 점차적으로 불안을 줄이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방법이다. 불안에 대한 忍耐力을 增進시키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Joseph Wolpe가 주장한 것으로 "만일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이 있는 곳에서 불안과 反對關係에 있는 반응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불안 반응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면 이들 자극과 불안 반응 사이의 紐帶는 弱化 될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36) 불안에 대한 자극은 實物일수도 있고 비데오 영상이나 활자 매체일 수도 있다.

이 방법의 순서는 恐怖의 位階 또는 불안의 감소 절차를 결정한 뒤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다. 37) 북한이 완전개방을 체제의 붕괴로 생각한다면 外部 文物에 免疫이 생기도록 順理的이고 漸進的으로 개방해가도록 협조해 주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이다.

---

주 35) 김동연외 2인 편저, [행동수정이론과 실제], (전주 : 신아출판사, 1989)  
PP 22-27

주 36) 서울대 의과대학편, [행동과학], (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89)  
PP 46-47

주 37) 이근후 외, 3인 공역, [행동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하나의학사, 1989) PP 111-125

지금 開發을 추진중인 금강산, 백두산지역이나 원산항구 지역 등을 자유로운 특구지역으로 설정하여 外交關係 일꾼들을 근무하게 한다든지 하여 收益을 늘이고 제 3국에서 北韓과 합작회사를 차려 북한으로 하여금 國際社會에 適應力을 키워주기도 하면 북한의 개방공포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북한의 不安에 대해 共感하면서 안정감을 얻을수 있는 대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서	불안위계	비고 (안정감 증대책)
1	완전 폐쇄	동기 부여
2	특구 선정	이익 보장
3	3개항(원산, 남포, 청진) 개방	자신감 부여
4	관광 개발	이익 확대
5	해외 남북기업합작	기업 지도
6	남북시청각자료 교환 방영	점진적 확대
7	통신 및 기상 자료 교환	기술 교류
8	남북 경제 교류	체제 보장
9	남북 도로 소통	경제 발전 산업구조 보완
10	완전 개방	대등한 입지보장

도표 2) 북한개방의 불안위계

#### 4. 肯定的 行動에 대한 REINFORCEMENT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을때 즉각 보상함으로써 行動과 報償을 條件化시켜 바람직한 행동의 頻度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보상은 후속자극이 되어 미래의 행동발생을 향상시키게 된다.

반대로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을때 싫어하는 대상물을 제거해 줌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라고 한다.

또 하나의 자극이 본래는 強化力(Reinforcement influence)이 있었으나 강화가 되는 자극(Reinforcer)과 짝지어져 제공되므로 강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이 자극은 條件強化(Conditioned Reinforcement)자극이라고 부른다. 이때 다른 강화자극과 교환하고 모을 수 있는 조건강화자극은 TOKEN이라고 한다.

이러한 강화(Reinforcement)방법은 주위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자극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조건이 형성되는 初期 段階에서는 자극이 제공되어지는 즉시 후속 강화자극(Incentive, 이익, 즐거움 등)이 뒤따라야 효과가 크다. 38)

북한이 한국에게 보여 줄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은 상당히 많이 있다. 대남 비난 방송에서 정도를 넘어선 非難 報道를 줄여 간다든지 휴전선에서의 고의적 휴전협정 위반을 줄이는 것, 豐漁時 限界漁勞線上的 한국 어선을 묵과하는 것, 테러를 자행하지 않는것, 戰鬪序列에서 극도의 비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는 生化學 부대는 후방으로 돌리거나 폐지하는 것, 한국내의 反政府勢力에 대해 흑색방송을 않는것, 국제사회에 한국의 치부를 확대 약선전하지 않는것...등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행동중에서 북한이 어느 하나라도 선택할 시에는 즉각적인 報償을 하고 북한이 감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으로 받는 惠澤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극비리에 도와주어야 한다.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Incentive나 요건은 주로 경제적인 혜택이 되겠지만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適在適所에 提供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5. 否定的 行動에 대한 TIME - OUT

환경이나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멸(extinction)법, Time-out,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등이 있으나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Time-out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Time-out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正的 強化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問題 行動을 촉발시킨 대상을 잠시 隔離시키는 방법이다.

---

주 38) 김동연외 2인편저, Op cite, PP 15-22

북한은 지금까지 東方의 사회주의 초소라고 자부하여 왔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미국에 대한 도전은 통치기반형성에 일조함은 물론 사회주의권의 代辯者로서의 幻想的 역할 기대와 결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너무 특이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특이한 행태가 북한체제의 理念과 生存方式을 다듬어 간다고 볼 수 있다.

Time - Out 방법은 북한의 특이한 행태를 문제 행동으로 대치시켰을 때 북한의 孤立化를 통해 改善시켜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북한의 고립화는 외교를 통한 직접적 북한 壓迫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줄수 있는 혜택을 거두게 하거나 반발없이 정치적으로 "기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한국에서 북한의 부정적 행동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직접대응식 행동은 효과가 크지 않다. 북한의 긍정적 행동은 같은 同族으로서 지지, 칭찬하고 부정적 행동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인식구조와 논리의 결함, 모순을 지적(슬쩍 건드림)하는 것이다.

북한 자신이 言語의 魔術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같은 정도의 感情이 섞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식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對話障礙와 言語 鬭爭의 공방전으로 에스컬레이트 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末梢的 反應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그러한 반응의 태도 이전의 북한의 의도와 심상에 대해 윤곽을 잡고 계속 좋은 감정으로 북한이 고통스럽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식구조를 조정시킬수 있도록 협조, 유도해야 한다.

한국이 이러한 遠隔的 행동변화 방식을 채택할때 정책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북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Interest Group이다. 그중에서도 북한이란 폐쇄사회에서 對外 情報를 독점하고 있는 정보,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북한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왜곡된 가치관과 인식구조를 펼쳐 버리지 못해 6.25 당시의 對南觀과 統一論理에서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 39)

---

주 39) 도흥렬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비교], 국토통일원, 1977 PP 7-8

북한사회의 이 Power-Elite 들이 認識의 轉換을 시도하고 "사실과 올바른 시각"에 입각한 情報處理를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은 북한사회의 주춧돌은 고사하고 민족사의 걸림돌로서 크게 비판받을 것이다.

## 6. 認知的 行動修正

認知治療 (Cognitive Therapy)의 大家로 알려진 Albert Ellis는 문제의 해결책이 먼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딪히는 상황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合理的 심리치료(Rational Therapy)라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40)

또 Donald Meichenbaum은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自己 訓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의 自己指示 (Self Instructional) 방법은 불안이나 긴장을 적당하게 대처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지시하고 위축 또는 과잉행동의 조정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은 대상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신념, 태도, 그리고 견해들을 변화시킴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을 성취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北韓 指導層이 편집적이고 환상적인 통일사업에 강박관념이 고착되어 계속 체제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自生力을 배양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문제는 '價値의 不一致'를 가져와 협상에서 "理解의 不一致'보다는 한결 성공율을 희박하게 만든다. 41)

---

주 40) 행동과학에서는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고있다.

김원경, 전개서 P 276

주 41) 박한식, "민족공동체의 이론적 배경"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1989, 국토통일원 P 198

북한은 해방후 반세기가 되어가는 이즈음에도 각종 보도, 활자 매체를 통해 金日成과 그 주변인물들이 滿洲에서의 행한 소규모 抗日鬪爭만을 주민의 Model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란 現實을 外面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설계하고자 할 때 북한이 未來像이 바르게 刻印 될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사회에서 그나마 어느정도 現實을 自覺할 수 있는 지식인과 언론인, 기술관료에 대한 자료지원과 정보의 제공이 요망된다. 북한의 學界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인 중에는 會談時 서울을 7-8차 왕래한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심장부를 일거에 움직이려 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접촉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 중에 이러한 現實認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부터 公開 또는 無言의 共感帶를 확산시켜 가는 것이다. 북한은 自我(ego)가 매우 취약한 체제이기 때문에 체제비판없이 탈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衝擊을 주는 것이 아니라 刺戟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갖고 있는 신념체계에서 비합리성을 발견하게 되어 내부로부터의 변혁의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북한에서 한국을 보는 만큼이나 왜곡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분단 이래 북한으로 인하여 받은 괴로움 때문에 의식구조의 深層에 까지 불신과 被害意識에 젖어 있다. 북한이 대화를 제의함과 동시에 땅굴을 굴설(70년대초 적십자회담)하고 아웅산 테러를 자행(80년대초 3자회담)하였기 때문에 항시 한국은 북한의 대화에서 眞實性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이르렀다.

그러나 7.7특별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적이 아닌 새시대 民族共榮의 동반자이다. 적어도 북한은 적이 아닌 相對이며 문제가 있다면 患者일 뿐이다. 이기고도 시합이 깨어지면 모두 진것이고 수술 잘하고도 환자가 죽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을 포기하거나 방관할 수도 없는 만큼 북한의 二重性을 경계하는 가운데 그 이중성 중에도 북한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한국이 키워주는 방법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바람직한 同質性을 확대시켜 가며 병리적인 요소는 위축시켜 가는 것이다. 42) 조심스럽게 북한을 童心의 세계로 이끌어 가면서 북한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長點과 합리적인 요소등을 발견해 내어 민족발전의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 주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主體思想을 예를 들더라도,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의 統治哲學이 되어 버린만큼이나 [교조적인 김일성주의]에서 [진정한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학술적으로나 인권차원에서 주체사상의 再解析을 시도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주 42) William & Sahakia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서봉연, 이관용 공역  
심리치료와 카운셀링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7) pp 397-398



## VI. 限界點 및 展望

지금까지 논술한 내용은 모두 남북한의 갈등해소를 위한 行動科學的 接近試案으로 하나의 가설체계를 구상할 것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묘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행동과학이 주는 限界를 무시할 수가 없다.

行動을 강조하였으나 인간의 의식이 주는 비중을 소홀히 할수없고 개인의 행동과 집단의 행동, 체제행동은 환경과 구성원의 개성에 따라 行動의 原理에 모두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한은 다양한 압력집단과 이익집단이 혼용되어 있어 대표적 행동이라고 표현할 만한 뚜렷한 사회체제의 방향과 경향을 포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行動科學으로 성립되려면, 1인 이상의 관찰자에 의해 인식될 客觀的인 現象만을 이론의 확증으로 삼아야 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배제하고 오직 계량화를 통해 검증과 수정 가능해야 한다. 또 自然科學 영역에서 개발된 객관적인 이론과 기법들을 원용하여 관찰 분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할 때 43) 본 연구는 참으로 빈약하여 오히려 하나의 學的 冒險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最近에 들어 행동과학 분야에 臨床心理와 精神醫學의 관련성이 깊어지고 학계에서도 人間問題 해결에 대한 기대가 이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제도나 이념보다는 인간에 의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함을 볼 때 본 연구는 조심스럽게 南北韓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하나의 시각을 소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시기 통일문제는 워낙 복잡하여 어느 事案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혼란스럽지만 感情과 認知過程을 통해 행동이 변화되고 상대방에 대한 心象을 토대로 의사가 결정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고려하면 남북한은 먼저 서로 肯定的이고 發展的인 心象이 형성되도록 범국가적 教育改革과 함께 內治에 완벽을 기하는 政治發展을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

---

주 43) [행정학 사전] (서울 : 고시원, 1985) P 959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 安定的으로 變化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끊임없는 關係 形成(Rapport)을 이루어 가야 하며 문제점이 북한측에서 발견된다면 北韓 中心的 문제해결 방식으로 협조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의 異質化 정도가 어떠한 간에 生存과 快樂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은 마찬가지로인 만큼 행동과학은 개인과 체제문제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분단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가치관과 인식구조가 形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될 民族社會에 적합한 行動樣式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가까운 분단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宿題일 뿐 아니라 멀리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할 汎民族的 課題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문헌

- 고준봉, 심리전략 시론 ( 서울 : 고려서적, 1982 )
-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 서울 : 법문사, 1990 )
- 김남성, 행동 요법 ( 서울 : 배영사, 1988 )
- 김대운 외, 군사 심리학 ( 서울 : 공학사, 1983 )
- 김동현 외, 행동수정 이론과 실제 ( 전주 : 신아 출판사, 1989 )
- 김영환, 임상 심리학 원론 ( 서울 : 하나 의학사 1989 )
- 김원경, 행동 과학 ( 서울 : 박영사, 1976 )
- 김준섭 외, 논리 연구 (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5 )
- 백상창, 맑스 모택동 김일성 그리고 한국 사회 ( 서울 : 한국 사회 병리 연구소, 1989 )
- 오세철, 조직 행동 ( 서울 : 박영사, 1983 )
- 이근후 외, 행동 치료의 이론과 실제 ( 서울 : 하나 의학사, 1987 )
- 이동식, 현대인과 노이로제 ( 서울 : 현대 의학 서적사, 1985 )
- 이호재, 한반도 군축론 ( 서울 : 법문사, 1989 )
- 장상호, 행동과학의 문제와 방법론 ( 서울 : 교육 출판사, 1988 )
- 정양은, 사회심리학 ( 서울 : 법문사, 1989 )
- 정정길, 정책결정론 ( 서울 : 대명출판사, 1988 )
- 조두영, 임상행동과학 ( 서울 : 일조각, 1986 )
- 홍대식, 응용사회심리학 ( 서울 : 박영사, 1989 )
- 경북대 의과 대학, 대화 ( 대구 : 경북대 의과 대학, 1987 )
- 서울대 사회학과연구실, 갈등과 권력 ( 서울 : 법문사, 1981 )
- 서울대 의과 대학, 행동과학 ( 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89 )
-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 서울 : 성원사, 1989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의 성격 ( 서울 : 고려원, 1984 )

2. 북한 자료

[ 사상 의식을 어떻게 개조 시킬 것인가 ], ( 평양 : 노동당 출판사, 1958 )

[ 사회주의심리학 ], ( 동경 : 학우서방, 1974 )

3. 외국 문헌

Abcarian, G. Monte Palmer, Society in conflict, An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서사연 역, 갈등의 사회이론 ( 서울 : 학문과 사상사, 1985 )

Aronson, Elliot, The Social Animal, 윤진 역, 현대사회심리학개설 ( 서울 : 탐구당, 1984 )

Barbu, Zevedei, The Problems of Historical Psychology, 임철규역, 역사심리학 (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3 )

Berkhofer, R. F. Jr. A Behavioral Approach to Historical Analysis, ( 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

De Bono, Edward, Conflicts, 최화섭 역, 갈등 해소의 논리와 방법 ( 서울 : 한국 경제 신문사, 1987 )

Davison, G. C. Abnormal Psychology, 4rd Edition (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6 )

Dewald, Paul A.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김기석 역,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 서울 : 고려대 출판부, 1988 )

Flippo, E. B. Management A Behavioral Approach ( Boston : Allyn and Bacon, 1969 )

Janowitz, Morris. Political Conflict, ( Cicago : Quardrance book, 1976 )

Kirkpatrick, S. A. The Social Psychology of polifical life, ( Belmont : Duxbury press, 1972 )

Ornstein, R. F. The Psychology of Consiousness, 이봉건 역, 의식심리학 (서울 : 성원사, 1989 )

- Polak, F. L. Prognostics, 林雄二郎 역, 豫測學, (東京 : diamonds 社, 1974 )
- Sahakian, W. S.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 Studies in Technigue, 서봉연 이관용 역, 심리치료와 카운셀링,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7 )
- Solomon, Richard H. Asian Security in the 1980s, by The RAND Coporation 1980. Oelgeschlager, Gunn & Hain Publishers, inc, 1980.
- Tomson, R. F. The Brain, 김기석 역외, 뇌, (서울 : 성원사, 1989 )
- Triandis, Harry. C.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71 )
- Wolman. B. B. The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History, 이운재 역, 정치 지도자의 정신 분석 (서울 : 태양 문화사, 1978 )
- Vygotsky, L. S. Thought and Language (Mass : The MIT Press, 1974 )
- 阪野 亘, 行動論 政治學, (京都 : 世界思想社, 1976 )
- 岡部慶三 外, 社會的 行動, (東京 : 培風館, 1969 )